

일상용품에서 건축까지 '여백의美'가 빛어낸 조선미술



우리 미술 이야기 3

최경원 지음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觀稼亭)은 1480년대 건립됐다. 조선의 이념이 가득한 건물로 한마디로 조선 시대 건축의 여백미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사실 동아시아 미학의 백미는 여백의 미, 비움의 미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런 비움의 여백미를 도자기나 사방탁자 같은 일상생활용품에까지 구현했을 뿐 아니라 건축에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 어느 나라의 여백의 미와는 다른 조선만의 탁월한 경치를 구현했다. 그 여백의 미, 비움의 미를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관가정이다. 양동마을 초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띈다. 아마도 마을의 종가적 역할과 관련 있기 때문도 하지만 경관을 고려한 배치로 보인다. 무엇보다 마루를 넓게 만들었다. 관가정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 모습을 내려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주택과는 다른 정자의 기능을 담고 있



다. '쓰임새 없는 마루를 방들의 면적만큼이나 넓게 만든 것은 바깥 경관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와 맞물린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진짜 모습을 담은 책 '우리 미술 이야기 3'은 디자인으로 읽는 조선의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디자인연구소 최경원 대표이자 '디자인 인문학', '한국문화 버리기'의 저자다. 최 대표는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 인문학 관점에서 우리 미술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풀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부제가 더 눈길을 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문구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저자는 철학의 나라 조선에 모티브로 도자기와 주택, 그림, 옷을 비롯해 심지어 무기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장한다. 먼저 저자는 '15세기의 현대 추상미술'인 분청사기 구름 용무늬 항아리를 소개한다. 조선의 건국이념은 주자학이었고, 수련을 통한 자연과의 합일에 됐다. 저자는 분청사기에 그려진 각종 장식 무늬나 용 그림은 그다지 잘 그려진 게 아니라고 본다. 제작 기법적인 관점에서 구름 용무늬 항아리 그림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다. "장식이나 용 그림이 잘 그려진 것 같지도 않아도 들뜬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인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속성이 추상적으로 잘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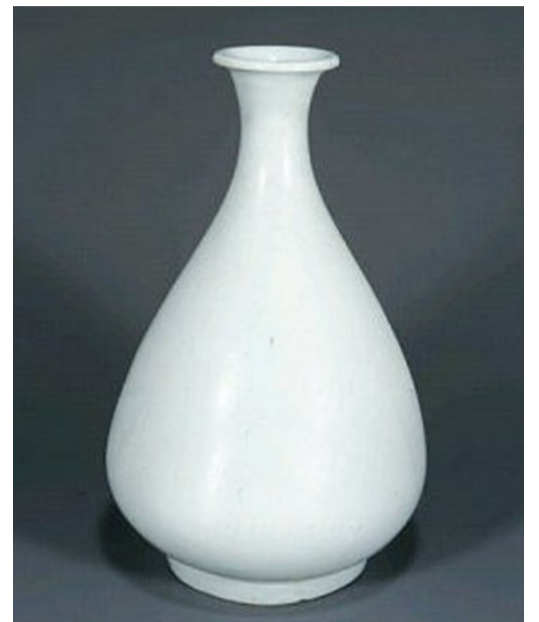
분청사기 구름 용무늬 항아리

사기뿐 아니라 조선 시대의 거의 모든 문화가 이렇듯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승자총통을 '조선의 휴대용 개는포'라고 비유한다. 조선은 건축 초부터 성능이 뛰어난 화포와 첨단 화약 무기를 개발했다. 군사력의 중심은 막강한 화력을 갖춘 화포와 총통일 수밖에 없다. 몸통이 파이프와 유사한 승자총통은 세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탄환이 발사되는 총열 부분은 길게만 들어져 있고, 중간 마디는 약실이 있어 충격 강화를 감안해 두껍게 만들었다. 뒤쪽 마디는 갈수록 넓어



원형 구족반

지는 구조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막대기를 끼울 수 있다. 저자는 왕실도자기에 대해서도 순백자를 선호한 미적 이념으로 상징한다. 성리학의 지향은 우주의 본성에 맞닿아 있다. "맑고 순수한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배양하는 토대"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게 비워지는 것을 일컫는다. 무엇이든 자랄 수 있는 토대는 비워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백자에 걸맞는 아름다운 파트너로 호족반과 구족반을 뺄 수 없다. 희고 단순한 모양의 백자에



백자

어울리기 때문이다. 상의 다리가 호랑이 같다고 불여진 호족반과 개의 다리 모양과 흡사한 구족반은 조형미가 뛰어나다. 전자는 화려한 장식을 가미한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특징이며 후자는 심플하되 단조롭지 않는 조형적 처리가 일품이다. 이밖에 책에는 '극도의 비움'을 드러낸 사방탁자, 조선의 에르메스 '왕실 보자기', '태극으로 만든 달' 백자 대호, '자연을 초대한 인공물' 지계 등도 만날 수 있다. <더블북·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라진 여자들

메리 쿠비카 지음·신승일 옮김

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끄는 책이다. 그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책은 정유정 작가가 추천해 더더욱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야기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야심한 밤에 시작된다. 조시의 아내인 메리디스와 그의 딸 딜라일라가 사라지면서 긴장의 파고 높아진다. 경찰들의 탐문수사가 시작되고 이웃들은 악의적인 정보를 내놓으면서 마을을 혼란의 바구니로 몰아넣는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오디오북 베스트셀러, 2022년 오디 어워드 수상, 드라마 시리즈 제작이 확정된 소설 '사라진 여자들'은 언급한 대로 제목부터 긴장을 불러넣는다. 뉴욕 타임스와 USA 투데이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굿 걸'로 범죄 소설에 수여하는 스톡홀름 크리스티스 어워드 최고 데뷔작 후보에 올랐던 메리 쿠비카가 저자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서스펜스와 반전,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이 수많은 영화 제작자를 홀리고 말았다"고 평했으며 북리스트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소설. 메리 쿠비카는 독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만과 아이러니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평했다. 이야기는 조시의 이웃집에 사는 케이트와 비아가 간밤에 메리디스와 딜라일라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들은 며칠 전 발생한 여성 실종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경찰의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두 사람을 목격한 이웃은 없지만 평소 그녀의 행적에서 이상한 점들이 탐문에서 나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출산 도우미와 요가 강사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근래 부쩍 휴무가 잦았고 동료들에게 도우미 일에 대한 회의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해피북스투유·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과 진실

강창래 지음

문학 교수나 전문가, 문인들은 문학을 정의하려 한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들이 문학을 정의했고 문학개론서에는 나름의 정의가 기술돼 있다. 그렇지만 어느 때는 명쾌하지 않다. 과연 문학이란 무엇인가. 세계 문학사의 주요 흐름과 최신 문학 이론 등을 첨가해 풀어낸 책이 나왔다. 출판기획자이자 '책의 정신'의 저자인 강창래가 펴낸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과 진실'이 그것.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간단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과연 무엇을 문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풀어낸 다음의 글을 읽으며 조금은 이 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려운 평론이나 작품 해설마저도 아주 재미있는 글이 되면 좋겠다. 모든 독서에서 말이 잘 통하는 지적인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이 책을 통해 어려운 인문학 텍스트를 독자들이 직접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학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여주기 위해서였다. 기초적인 지식과 내용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의 주요 흐름을 쉽게 전달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저자는 모두 10장에 걸쳐 문학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 '프랑스 문학', '영국 문학', '미국 문학', '러시아 문학'이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간 모더니즘 시인들', '모더니즘 소설들', '미국의 모더니즘', '문학이론-해석학, 정신분석학, 해체론까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유서가·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을 구하는 영화관

이지선·배동미 지음

클라이막스가 한창인 영화관 스크린, 장면 속 하나 둘 떠돌던 몸뚱이는 엔딩크레딧과 함께 영화가 막을 내리려 사라지지 않는다. 스크린 속 잔상과 함께 남은 궁극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발견됐다. 영화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설명하는 책 '세상을 구하는 영화관'은 전쟁과 난민, '빈곤과 격차', '차별에 반대한다',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등 4개 테마로 '모가디슈', '설국열차', '그린북', '돈 독업' 등 우리에게 익숙한 17개 영화를 역사적 배경과 사회의 흐름 등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 이지선 작가는 신문사에서 18년간 일하다 현재는 책을 쓰고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저자 배동미 작가는 영화 주간지 '씨네21'과 월간지 '한국영화' 필자로 활동 중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많은 두명의 작가는 한 편의 영화가 한 사람의 세계를 넓고 깊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영화 '그린북'은 흑인이 어울릴 수 있는 식당이나 호텔 등이 어디인지 소개한 책으로 실용적이면서도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1962년, 백인 운전사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가 미국 남부 콘서트 투어를 떠나면서 겪는 인종차별적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영화의 내용과 함께 책 속엔 문자 파크스로부터 촉발된 민권운동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심리학자의 실험까지 영화의 배경과 오늘날 우리를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설명한다. 영화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겪어보지 못한 세대와 가보지 못한 나라를 편하고 빠르게 경유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며 하나의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한다. <서해문집·1만 4800원>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